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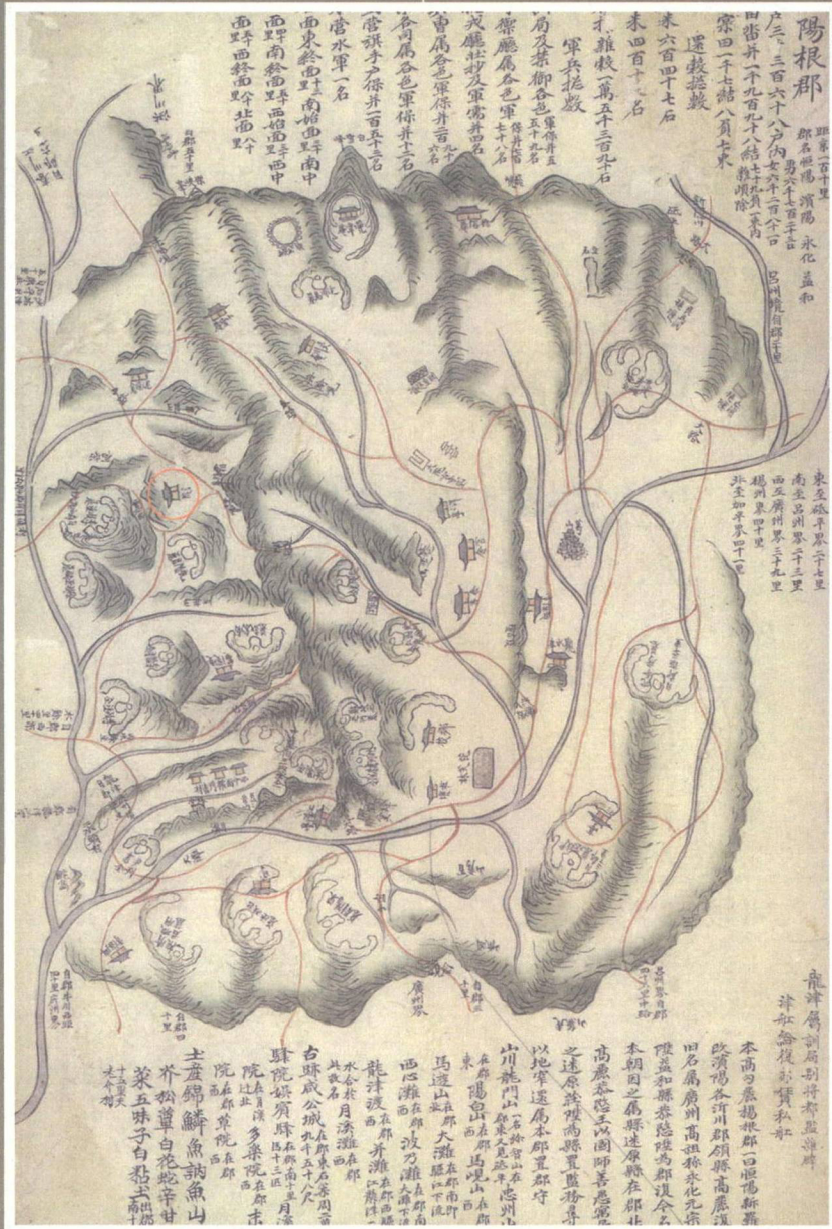
子

陽艮耶

距第一百十里

永元通和

東至破平縣二十七里



수곡서원(水谷書院)

1. 연혁

- 1) 창 건 : 고종 11년(1874)
- 2) 사액연도 :
- 3) 중 수 : 1922년-1930년, 1935년, 1976년
- 4) 훼 철 :
- 5) 지정번호 :
- 6)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
- 7) 서 원 지 : 무
- 8) 제향인물 : 권경우(權景祐)·권경유(權景裕)

2. 내용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에 있는 서원이다. 서울에서 남한강을 따라 6번 국도를 달리면 양평읍과 용문면을 지나 지제면소재지로 가는 70번 국지도의



수곡서원 입구에 있는 강당 전경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지제면소재지를 거쳐 여주 방향으로 가다가 4번 군도로 갈아타고 북쪽으로 2km를 가면 수곡리 안골 마을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800m 들어가면 어은저수지를 지나 안골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안골 마을 뒤 능선 아랫부분의 양지바른 언덕에 수곡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수곡서원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화(禍)를 당한 대사헌 권경우와 현감을 지낸 권경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고종 11년(1874) 유생들이 주선하여 건립하고, 두 사람의 위패를 모셨다.

그런데 애초에 운계서원(雲溪書院)에 배향되었던 권경우·권경유 형제를 왕명으로 향현사에 배향하도록 하였으나 정조 22년(1798년) 유림(儒林)의 상소에 의해 다시 운계서원에 배향하였다가 운계서원이 철폐되자 이곳에 서원을 짓고 다시 두 분을 모시면서 수곡서원이라 하였다. 그 후 1922년부터

1930년에 걸쳐 공사를 하였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綱)이 친필 현판을 내렸다.

경내 건물에는 사우(祠宇)·신문·동서협문(東西夾門)·강당 등이 있고, 향교(鄉校) 건물의 배치와 같게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건물을 세웠다.

재실이 앞에 있고, 그 뒤쪽에 내삼문(內三門)이 있으며, 좌우에 담장을 둘러 사우를 건립했다. 사우는 맞배지붕에 겹처마의 6칸이며, 재실인 성경재(誠敬齋)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 10.59평 규모로, 강당 중앙은 마루이며, 양쪽에 온돌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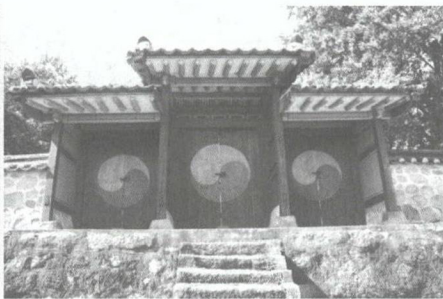
1976년 보수한 내삼문은 높은 석대를 쌓고 솟을 대문을 달았으며,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수곡서원(水谷書院)이란 제액이 달린 본당(本堂) 사우는 정면 7.64m(3칸), 측면 3.72m(1칸),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한 초익공(初翼工) 집으로 한식(韓式) 골기와를 얹었으며, 좌우 방에 방풍판을 달았다.

주춧돌은 전면 4개, 좌우면 각각 3개씩으로 그 위에 원통형(圓筒形) 기둥을 세웠는데, 주춧돌이 원좌주초(圓座柱礎)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우에서는 매년 중정일(中丁日)에 권씨문중(權氏門中)이 주관해 제향(祭享)을 올린다. 강당은 서원의 행사, 유림의 회합 등에 사용하고, 평시에는 학문을 강론하지만, 제향(祭享) 때는 제관(祭官)들의 준비 장소로도 쓴다. 서원



수곡서원의 재실인 성경재 현판



외삼문 전경



수곡서원의 중심건물인 사우 전경



‘수곡서원’ 현액

에 딸린 재산은 전답 3천 평과 임야 15정부가 있다.

유물(遺物)로는 성경재에 걸려 있는 수곡서원기(水谷書院記) 현판이 1매 있는데, 어담 기(魚潭 記), 권춘영 서(權春榮 書)로 되어 있다. 말미(末尾)에 ‘孔子誕生二千四百八十六年乙亥小春下澣記’라고 하여 1935년 중수(重修) 때 단 것으로 추측된다.

3. 제향인물

1) 권경우(權景祐) : 생몰년 미상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자수(子綏)이다. 증조부는 집지(執智)이며, 조부는 영화(永和)이고, 부친은 판관 질(耆)이다. 좌의정 어세겸(魚世謙)의 사위이고, 대사헌 권경희(權景禧)와 이조정랑



수곡서원 내삼문에서 바라본 강당

권경유(權景裕)의 형이다.

성종 1년(147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뒤에 예문관봉교로 승진해 사관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듬해에는 천추사(千秋使)의 검찰관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통사(通事) 조종손(趙宗孫)이 함부로 마포(麻布) 2백 62필(匹), 수달피(水獺皮) 15장(張), 호피(狐皮) 47장, 초피(貂皮) 5장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 공로로 성종이 다섯 품계를 가자하자, 이를 극구 사양하였다. 이로써 4계급 승진해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홍문관수찬으로 옮겨 성종 8년(1477)에 제주경차관(濟州敬差官)으로서 제주도민의 궁핍에 관한 대책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또한 제주도 인민들이 배를 타고 경상도, 전라도 바닷가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자가 수 천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수령들이 이를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추국할 것을 요청하여 제주도의 호적을 살펴서 사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어 임사홍(任士洪)이 국정을 농락함과 간사하기 이를 데 없음을 규탄하였고 내쫓기를 청하였다.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이 때 임사홍이 권경우의 집에 가서 “누가 감히 이 의논을 내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오직 나라야 감히 할 수 있다.”라 하였다. 임사홍은 말 한



수곡서원 재실에서 바라본 내삼문

마디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고 한다. 이처럼 권경우의 강개한 기품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왕의 수렴 시 승지와 사관의 대동을 금하자 불가함을 주장하고, 국왕의 거동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기술

하게 했다.

성종 13년(1482)에 홍문관부교리로 있을 때, 왕비 윤씨를 폐위시킨 처사를 간언하였다. 이때 교리 권경우는 동궁 시독관(侍讀官)으로서 아뢰기를, “아들이 동궁이니 어머니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여염집에 거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가 세자에게 몰래 붙어서 훗날에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권경우는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사리대로 말하고 정성을 털어놓아 역대의 군주들이 폐비를 대우한 일을 인증(引證)하면서 말이 더욱 간절하니 임금은 이에 노염을 풀고 그 관직만 파면시켰다.

성종 17년(1486)에 직첩이 환급되어 예관(禮官)으로 복직되고, 이어서 사간으로서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양(李朝陽)의 군비 소홀과 군공 사칭을 탄핵, 면직시켰다. 이어서 성종 23년(1492)에 형조참의가 되었다. 이 해에 문신으로서 의주목사를 제수받았으나, 문신이라는 이유로 의주목사에 임명할 수 없다는 대간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직첩은 거두고 홍천으로 부쳐되었다. 이어서 성종 24년(1493)에 동부승지, 좌부승지를 역임하고, 연산군 1년(1495)에 우승지에 임명되었다. 이 때 형조정랑 조중휘가 영릉 참봉으로 있을 때에 불법을 행하였음을 간하였다. 연산군 2년(1496)에 승정원 도승지로 임명되고 이어 2년 뒤에는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 이 때 소인과 내시를 멀리하고 외척도 쓰지 말라고 임금께 간하였으며, 사찰 건립의 불가함을 논하였고, 또한 정승조(鄭崇祖)·이창신(李昌臣) 등 탐폭을



수곡서원 전경

규탄했다. 그해에 동생인 권경유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려 무오사화가 일어나 주모자로 처형되자, 그 연좌에 걸려 권경우도 강릉부 관노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연산군 5년(1499) 권경우의 능력과 인물됨이 인정받아 강릉부의 관노신분에서 방환되었고 직첩도 돌려받았다.

성품이 강직해 권신에게 구차하게 의부하지 않았으며, 직무를 공정히 다스려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다. 중종반정으로 적몰가산이 환급되고 죄명도 신원되었다. 1930년에 권경우 묘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곡서원에 제향되었다.

권경우의 묘소는 현재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 안골마을 뒤편에 위치해 있다. 묘 왼쪽에는 묘비가 있고 중앙에는 상석이 배치되어 있다. 좌우에는 장명등과 망주석,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신도비는 마을 뒤편 능선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 묘소는 능선을 따라 약 50m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다. 신도비(총높이 304cm, 폭 73cm, 두께 19.5cm)는 1875년에 세워진 것으로 비문은 허전(許傳)이 짓고 권현(權炫)이 썼다. 이수와 장방형 대좌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두형인 이수부는 2마리의 용과 구름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 권경유(權景裕) : ? ~ 연산군 4년(1498)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군요(君饒)·자범(子汎)이며 호는 치현(痴軒)이다. 증조부는 집지(執智)이며, 조부는 영화(永和)이고, 부친은 판관 질(耆)이다. 권경우의 동생이다.

성종 14년(1483)에 진사가 되고, 성종 16년(1485)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에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를 거쳐, 성종 21년(1490)에는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당시 조지서와 더불어 임사

홍(任士洪)을 임사(任使)할 수 없음을 극력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천거되어 교리에 이르렀으며, 연산군 1년(1495)에는 외직을 청하여 제천현감이 되었다. 제천현감으로서 권경유는 재(齎)를 파하기를 상소하던 성균관유생이 죄를 받게 되자, 적극 나서서 재는 불가의 교리이므로 파해야 되며 성균관 유생을 사면하여 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연산군 4년(1498)에 호조참판에 제수받았다.

성종 때 김일손(金駟孫)과 함께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실었고, 이에 대해 ‘종직이 염정(廉靜)하고 충화(沖和)하여 사문(斯文)으로써 자기 책임을 삼았으며,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격렬하여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문장은 다만 그 여사(餘事)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 때 유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 등은 충의를 빙자하여 사당(私黨)을 조직하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어 후세에 전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가 김종직보다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여, 김종직의 제자들이 모두 국문을 받게 되었다. 권경유 역시 국문을 받은 뒤 아들 연(演) 및 김일손·권오복(權五福)과 함께 능지처사되었다. 권경유는 국문을 받을 때 오히려, 사초의 구절 아래 ‘비록 만세 후라도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더 넣어 달라고 청했다. 추관이 들어주지 않자, 붓을 던지고 서명(署名)을 거부했다. 급기야 고문을 당했는데, 권경유는 눈을 감고 신색(神色)을 안정하여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니, 연산군이 이를 듣고서 ‘경유는 강포한 자다.’고 말하였다.

중종반정 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그는 남효온(南孝溫)·김일손·강경서(姜景紱) 등과 함께 사장(詞章)·정사(政事)·절의(節義)·효행으로 이름이 높았

다. 남효온은 “성품이 강직하면서 굳세고 일을 만들기를 즐기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시호는 효강(孝康)이다.

4. 관련기록

1) 창건·중수기록

없음

2) 문집에 보이는 서원 관련 기록

없음

3) 조선왕조실록의 서원 관련 기록

없음

여 백

운계서원(雲溪書院) ; 용문서원(龍門書院)

1. 연혁

- 1) 창 건 : 선조 27년(1594)
- 2) 사액연도 : 숙종 39년(1713)
- 3) 중 수 : 1932년 복원
- 4) 훼 철 : 고종 8년(1871)
- 5) 지정번호 :
- 6)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서원말 산4-2
- 7) 서 원 지 : 유
- 8) 제향인물 : 신변(申忭)·조성(趙晟)·조옥(趙昱)·조형생(趙亨生)·조문형(趙門衡)

2. 내용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에 있는 서원이다. 서울에서 남한강을 끼고 6번 국

도를 달려 양평읍을 지나 용문산 쪽으로 가다 보면 덕촌리 서원마을에 이른다. 이곳 서원마을의 계류(溪流)를 지나치는 덕촌교를 건너 물길을 따라 100여 m쯤 가면 서쪽 산 중턱 한적한 곳에 위치한 운계서원을 만날 수 있다.

운계서원은 양평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서원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운계서원의 본래 명칭은 용문서원(龍門書院)으로 효종 5년(1654)에 사림들이 조옥이 말년에 은거하면

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세심당(洗心堂)이 있던 곳에 조옥과 그의 형 조성, 그리고 신변을 제향하고 용문서원이라고 한 것이 그 유래이다. 당시 용문서원 상량문은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지었다.

그 후 숙종 40년(1714) 박세구 등이 상소를 올려 사액을 청하였다(청액소, 1714년 박세구 찬).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성과 신변의 경우 “학문의 깊이에 관하여 선배들의 표장(表章)이 없어 후학들이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제향하는 문제를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여 사액을 보류하였다고 한다(찬자 미상, 재청액소, 지평향교지). 지평 사람들은 그 해 다시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마침내 조옥과 조성을 제향하여 용문서원이라



운계서원의 중심건물인 사우(사진 위)와 ‘운계서원’ 현액(사진 아래)



운계서원 사우와 사당 전경

고 사액을 받았다.

이에 지평사람들은 같은 해 9월 28일 지평동헌 옆에 향현사를 건립하여 조옥의 손자인 조형생, 조옥의 증손인 조문형과 함께 제향하였다(청액소 1714년 박세구 찬). 정조 22년(1798) 지평유생 민

성유(閔聖游) 등이 상소하여 특명으로 권경우(權景祐, 1448~1501)를 추가로 제향하였다(수곡서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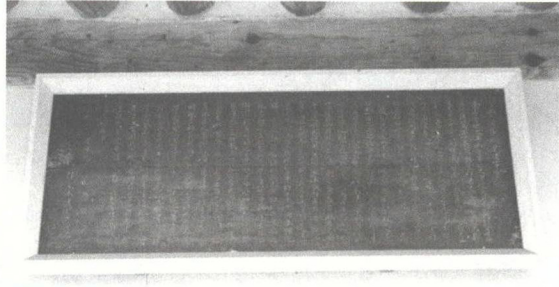
그 후 현종 4년(1838)에 왕이 양평 용문사(龍門寺)에 행차했다가 서원의 이름이 절의 이름과 같다고 하여 운계서원(雲溪書院)으로 개칭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향현사에 모셔져 있던 조문형을 운계서원에 추가로 제향하였다(조문형 묘갈에는 현종 4년(1838) 용문서원을 운계서원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추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899년 나온 지평읍지에는 조문형의 향현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다가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서원이 훼철되어 위패를 서원 터에 매안(埋安)하고 단을 설치하여 향사만 지내왔다. 그 뒤 1932년에 지평의 유림들과 조원호(趙元鎬)를 비롯한 조옥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현 위치에 서원을 복원하였는데, 권경우는 후손들이 별도로 수곡서원을 세우고 이향하였으므로 조옥과 조성, 신변, 조형생, 조문생 5인만을 제향하게 되었다. 1958년부터 조옥의 탄생일인 음력 8월 21일 향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원은 남동향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며, 경내 건물로는 사우, 강당, 신문,

동서 협문 등이 있다. 서원의 규모는 재실(齋室) 한 채와 묘우(廟宇) 뿐으로 담장이 멸실되었던 것을 근래에 복원하였다. 평평한 대지의 좀 낮은 곳에 재실을 건축하였는데 팔작(八作)지붕으로 한식(韓式) 골기와를 얹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운계서원’이라는 제액은 사당에 걸려 있는데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원좌(圓座)의 주초석(柱礎石)을 마련하고 큼직한 장대석(長大石)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면 당초에는 정성을 들인 건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붕은 팔작으로 한식 골기와를 얹었으며 첨차에는 단청(丹靑)을 칠하였다.

서원으로부터 약 1km 쯤 떨어진 덕촌리 퇴촌마을의 남서편 절벽에 조옥 선생의 도학 강론장인 세심정(洗心亭)과 연못이 있으며, 덕촌리 퇴촌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남쪽 구릉에는 조옥의 묘가 있다.

유물(遺物)로는 재실에 현판 1매(枚)가 보관되어 있는데 <운계서원중건사실기(雲溪書院重建事實記)>로 말미(末尾)에는 ‘임오양월일(壬午陽月日)’이라 기록되어 있다.



운계서원 중건 사실기

3. 제향인물

1) 신변(申弁) ; 성종 1년(1470) ~ 중종 16년(1521)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낙천(樂天)·낙옹(樂

翁)이며, 호는 굴우정(橘宇亭)이다. 증조부는 경종(敬宗)이며, 조부는 정랑 수복(守福)이며, 외조부는 청백리 허종(許琮)이며, 부친은 감찰 영화(永和)이고, 모친은 좌의정 허침(許琛)의 딸이다.

연산군 7년(150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차례로 부모의 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侍墓)를 살았다. 조광조, 김식과 도의를 맺어 교유하였다. 중종 6년(1511)에 활을 잘 쏜다 하여 병조의 추천으로 선전관(宣傳官) 등의 직을 제수받았다. 중종 10년(151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곧 성균관학유가 되었다. 중종 11년(1516)에 중종이 유능한 인재를 탁용(擢用)하려 하자 병조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변방관관의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중종 12년(1517)에 이조판서 남곤(南袞) 등이 그를 정자 유庸(柳庸)과 함께 재능이 있다 하여 6품직에 승급시켰다. 중종 14년(1519)에 지평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황해도도사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지평(砥平)에 일시 은거하였다가 병조좌랑이 되었다. 이때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김식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어 다시 지평에 은거하였다.

중종 16년(1521)에 동생인 생원 철(哲)이 송사련(宋祀連)의 무고에 의하여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루되었다. 신사무옥이란 송사련이 처남과 모의하여 안치겸 등이 변란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심정에게 무고하면서 일어난 옥사이다. 이 때 지란불고죄(知亂不告罪)와 교결역신죄(交結逆臣罪)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다. 당시 신변은 고문을 당하며 ‘事君如事父後 天日照丹忱死’이란 절구를 남겼다.

인종 1년(1545)에 복관되었으며, 효종 5년(1654) 지평의 유생들이 사우(祠宇)를 만들어 제향하였다. 영조 16년(1740) 윤계서원에 제향되었고, 영조 22년(1746)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지평의 윤계서원(雲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신(貞信)이다.

2) 조성(趙晟) ; 성종 23년(1492) ~ 명종 10년(1555)

조선 중기의 음악이론가이자, 학자, 의원이다. 본관은 평양(平壤)이고, 자는 백양(伯陽)이며,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다. 부친은 판관 수함(守誠)이며, 모친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춘양군(春陽君) 래(徠)의 딸이다.

1512년 이위, 정위겸, 노전 등과 함께 생원이 되기 이전인 21세 나이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이 때 사헌부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벼슬을 제수함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임금의 재가를 얻어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중종 8년(1513) 생원에 합격하였으나 병을 얻어 오랫동안 정양하며 30여 년간 오로지 학문과 후학을 기르는 데만 전념하였다.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특히 성리학에 밝았으며, 필법에도 능하였다.

중종 35년(1540)에 숨겨진 선비를 천거하라는 중종의 명을 받들어, 당시 형조 판서 유인숙은 유학 성수침(成守琛)과 진사 조성(趙晟)을 천거하였다. 명종 7년(1552)에 조성은 부사과(副司果)에 임명되었다. 이때 실록에 실린 조성의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은 기성인(箕城人)으로 유일(遺逸) 조욱(趙昱)의 형이다. 어려서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인품이 천문(天文)·지지(地誌)·의약(醫藥)·복서(卜筮)·산수(算數)·율려(律呂) 등에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남을 구하는 공효(攻効)는 단지 의술로만 이룰 수 있다.’ 하고는 의학에 힘써 깊이 통달했으므로, 그가 살린 사람이 매우 많았다.

명종 6년(1551) 교정청을 설치하여 세종 때 박연이 만든 편종과 편경을 교정할 즈음 우참찬 안현(安瑱)의 책임하에 악예관(樂禮官)으로 천거되어 율태(律台)를 이정(釐正)하였다.

명종 8년(1553) 종경청(鐘磬廳)에서 윤춘년(尹春年)이 박민헌(朴民獻)·정희문(鄭希文) 등과 더불어 묘악을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이 해에 동반(東班)의 주부로 서용되었다가, 다시 사축서 사축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의영고령(義盈庫令)에 이르렀다. 또한 흠경각(欽敬閣)이 소실되자 그 수리를 맡아 불타기 전과 똑같이 복구하였고 간의대(簡儀台)를 감수하여 천체를 살피는 기구를 모두 고쳤다.

그는 율려(律呂)에 밝을 뿐 아니라 의약과 산수, 천문, 지리에도 정통하여 의산률(醫算律)의 삼학교관(三學敎官)을 지냈다. 일찍이 퇴계 이황이 그를 만나 율태, 산수 등에 대해 의심점을 물어보며 지혜에 감탄하였으며, 훗날 그의 문집 발문(跋文)을 짓기도 하였다.

또한, 거문고의 명인으로서 이득윤(李得胤)의 《고금금보문견록(古今琴譜聞見錄)》과 《송씨이수삼산재본금보(宋氏二水三山齋本琴譜)》에 <조성보(趙晟譜)>가 전한다. 그에게서 수학한 문인으로 심수경(沈守慶)과 박계현(朴啓賢) 등이 있다. 지평의 운계서원(雲谿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양심당집》이 있다.

3) 조욱(趙昱) ; 연산군 4년(1498) ~ 명종 12년(1557)

조선 중기 때 학자이다. 본관은 평양(平壤)이고, 자는 경양(景陽)이며, 호는 용문(龍門)·보진재(葆眞齋)이다. 부친은 판관 수함(守誠)이며, 모친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춘양군(春陽君) 래(徠)의 딸이다.

중종 11년(1516)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을 사사하면서 학문연마에 힘썼다. 기묘사화 때 두 스승에 연루되었으나 연소하다고 하여 화를 면하였다.

그 뒤 형인 성(晟)과 함께 삭령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강론하며 지냈는데, 세

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에 비겨 칭송하였다. 뒤에 선원전(璿源殿)·순릉(順陵)·영릉(寧陵) 등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 3년상을 마치고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학문이 알려져 용문선생이라 일컬어졌다.

명종대에 이르러 학행이 널리 알려졌다. 명종 6년(1551)에 경기감사 유진동(柳辰仝)이 조옥의 학문과 조행의 홀릉함에 관해 장계를 올려, 임금이 유일(遺逸)로서 벼슬에 서용하도록 하였다. 그 장계에 의하면, 조옥은 재주와 행실이 고결하였고 청빈(淸貧)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지키면서 이록을 구하지 않고 항상 산수(山水) 사이를 소요한다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어 명종 7년(1552)에 이조에서 팔도에 쓸 만한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조옥은 ‘재행이 고결하여 가난함을 편히 여기고 옛것을 좋아하므로 이록(利祿)을 구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한가함을 즐겼다.’라고 하여 천거되었으며 주부(主簿)에 제수되었다. 그 이듬해에 6품직에 제수하라는 어명이 내려졌으나 이조에서 권신의 청탁을 받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적발되었다. 해당 이조관리는 파직되었다. 명종 8년(1553)에 조옥은 6품의 관직을 제수받았으며,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로 임명받았다. 이어 장수현감으로 제수받았다. 현감으로 재직 중 선정을 베풀고 학문을 장려하는 등 풍속 교화에 힘썼다. 명종 10년(1555) 5월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왜구를 선방하면서 읍민들을 수습한 뒤 관직에서 물러나 다시 용문산에 은거하였다.

이후 덕촌리 산137번지에 정자를 건립하여 연당(蓮塘)을 만들고 제액을 세심정(洗心亭)이라 하였으며, 스스로 당호를 ‘세심당(洗心堂)’이라 하고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명종 12년(1557)에 향리에서 병환으로 별세하였다. 《명종실록》에 실린 조옥의 졸기는 다음과 같다.

전 장수 현감(長水縣監) 조옥(趙昱)이 졸하였다. 옥의 자(字)는 경양(景陽)인데, 사람됨이 허심탄회하고 담박하여 영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경사(經史)를 많이 읽고 시율(詩律)에 능하였다. 처음에 공천(公薦)으로 참봉을 제수하였는데 바로 심질(心疾)을 얻어 벼슬에 나서지 않았다. 드디어 용문산(龍門山) 아래에 살 곳을 정하고는 산속에 노닐면서 즐겼고 시를 읊으며 회포를 풀었다. 조정에서 유일(遺逸)로 천거하여 장수 현감을 제수했는데 다시 병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서 이내 죽었다. 그의 형 조성(趙晟)도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했는데, 의학(醫藥)에 정통했으며, 음률(音律)·산학(算學)·천문(天文) 같은 것을 환하게 알지 못한 게 없어 동생과 함께 당세에 유명했다.

시문과 서화에 능하였으며, 조광조의 수제자로 널리 학행이 알려져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영조 16년(1740) 좌의정 김재로는, “고(故) 유일(遺逸) 조옥(趙昱)·조성(趙晟)은 다 선정(先正)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인데 학행이 높아서 다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에 들었으니, 포증(褒贈)해야 하겠습니까.”라고 건의하여 3품(品) 벼슬인 이조참의에 추증(追贈)되었으며, 현종 9년(1843) 이조판서 겸 성균관제주로 추가 증직되었다. 용문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용문집》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묘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7에 소재하며, 향토유적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역은 약50평으로, 장대석의 호석이 둘러져 있으며, 묘 우측에 묘비가 있고, 중앙에는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묘갈은 높이155cm, 폭 58cm, 두께 31cm이다. 비문은 상단에 전자(篆字)로 ‘유명조선국용문조선생묘비명병서(有明朝鮮國龍門趙先生墓碑銘并序)’라고 했다. 조옥의 증손인 조문형(趙門衡)이 부탁하여 묘비명(墓碑銘)은 조익(趙翼)이 짓고, 이건명(李健命)이 글씨를 쓰고, 이징하(李徵夏)가 전(篆)했다.

김진상(金鎭商)의 추기(追記)를 덧붙여 영조 21년(1745)에 세웠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팔작지붕형의 옥개와 장방형의 비좌를 갖추고 있다. 말미(末尾)에 ‘준오계을축사헌부대사헌김진상추기 시년시월일입(浚五季乙丑司憲府大司憲金鎭商追記 是年十月日立)’이란 음각으로 보아 묘갈(墓碣)은 영조 21년(1745)에 건립했음을 알수 있다.

조옥의 묘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덕촌리 길가에 2000년에 세워진 조옥의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1998년 최근덕(崔根德)이 짓고, 황재국(黃在國)이 썼다. 묘에서 남동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덕촌리 서원말에 조옥을 제향한 윤계서원이 위치해 있고, 남서쪽으로 700m정도 떨어진 곳에 세심정과 조옥이 살았었다고 하는 퇴촌마을이 위치해 있다.

4) 조형생(趙亨生) ; 명종 19년(1564) ~ 인조 6년(1628)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평양이고, 자는 달가(達可)이고, 호는 둔곡(遯谷)이다. 조부는 조옥이며, 부친은 내자시 봉사 인빈(仁賓)이다. 모친은 전의이씨로 13세에 모친상을 당해 어른과 같이 상례절차를 지켜 사람들이 “용문선생을 이어받을 자는 이 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항상 조부의 유훈(遺訓)을 보고 성현의 경전을 탐구하여 뜻을 얻은 바 있어 글로 썼으며 경수(耕叟)라고 스스로 호를 지었다. 이식, 임숙영(任叔英), 정엽(鄭曄) 등과 막역한 사이였다.

광해군의 폭정이 극심하였던 당시에 조형생은 초야에 거처하였다. 인조 1년(1623) 실록에 의하면 “조형생(趙亨生)은 지난날 용문 거사(龍門居士)라 일컬은 조옥(趙昱)의 손자로서 역시 지행이 있는데, 지금 용문산(龍門山)에서 살며 몸소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삼고 문달(聞達)을 추구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라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에 따라 이 해에 이조(吏曹)에서

인재등용을 청함에 따라, 광해군에게 직언하다가 죄를 입은 유생들과 함께 학행이 있는 유생으로 인정받아 6품직을 제수받아 사재감 주부(司宰監主簿)에 임명되었다. 그 후 공조좌랑에 올랐다. 인조 2년(1624)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조좌랑이었던 조형생은 남쪽으로 황망히 떠나는 임금을 모시면서 나루터에 배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예산현감으로 나아갔다가 관직을 사퇴하고 지평 둔촌의 옛집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따라 강화도에 가서 적을 물리쳤고, 다음해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가 많이 있었으나 난(亂)을 당하여 흩어져 전해지지 않는다. 평생을 검소한 의복으로 일관하여 악의악식(惡衣惡食)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위엄있는 용모와 엄숙한 성격이어서 정색하고 꿇어앉아 있으면 사람이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어 송연히 자세를 고치기 일쑤였다. 혹 부정(不正)한 색과 불선(不善)한 사람을 만나면 눈을 감고 그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손인 조중벽(趙重璧)이 높은 벼슬을 받아 사복시정에 증직되었다

5) 조문형(趙門衡) ; 광해군 9년(1617) ~ 숙종 26년(1700)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평양이고, 자는 민보(敏甫)이고, 호는 둔촌(遁村)이다. 증조부는 현감 육(昱)이며, 부친은 익생(益生)이다.

일찍이 절조가 뛰어나 친구들이 ‘용문선생에 그 손자’라고 일렀으며 19세 때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어찌 사람노릇을 할 수 있으며 내 선조는 학문으로써 이름을 높이셨는데 자손된 자로서 이를 이어 펴지 못하면 조상에 죄가 된다”고 하였다. 김극형(金克亨)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니 동문수학한 학생 중에서 으뜸이었다.

윤휴(尹鑄)와 교유하였으나, 화(禍)를 알고 절교하여 그가 사람보는 눈이

있다고 하였다.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 천거를 받아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다가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에 올랐다. 숙종 8년(1682)에 지례현감이 되었을 때 진휼을 잘하여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공을 기리기도 하였으나, 숙종 12년(1686)에 반대파의 모함으로 한때 파직되기도 하였다. 숙종 20년(1694)에 홍원감목(洪原監牧)이 되어 오래된 폐단을 많이 제거하였다.

숙종 26년(1700)에 노직(老職)으로 당상관의 품계를 받았다. 6남인 조방흥(趙邦興)의 공으로 보사원종공신에 추증되었으며, 같은 해에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아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나, 곧 별세하였다. 향사(鄉祠)에 배향되었다.

4. 관련기록

1) 창건·중수기록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 서원

지평(砥平) 운계서원(雲鷄書院)[계사년에 세웠고 숙종 갑오년에 ‘용문(龍門)’이라 사액하였다.] : 조성(趙晟)[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벼슬은 의령고령(義盈庫令)에 이르렀다.]·조옥(趙昱)[명종조의 유일(遺逸)]·신변(申忭)·조형생(趙亨生)[호는 둔곡(遯谷)이며, 벼슬은 현감이고 옥(昱)의 손자이다. ○ 위의 두 위[二位]는 처음에 함께 배향[并享]하였다가 숙종 갑오년에 전교로 인하여 따로 향현사(鄉賢祠)를 세웠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지평현(砥平縣)

운계서원(雲谿書院)[선조(宣祖) 갑오년에 세웠다가 숙종 갑오년에 사액(賜額)하였다.]

《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 경기도(京畿道)

雲溪書院[在砥平 宣祖甲午建 肅宗甲午賜額] 趙晟[字伯陽 號養心堂 平壤人 官義盈庫令] 趙昱[字景陽 號龍門堂 晟弟 有訓蒙成就之功 官長水縣監 贈吏曹參議]

《조두록(組豆錄)》 지평(砥平)

雲溪書院[宣祖甲午建 肅宗甲午賜額] 趙晟[字伯陽 號養心堂 平壤人 官義盈庫令] 趙昱[字景陽 號龍門 晟弟 官長水縣監 贈吏曹參議]

《동유서원총록(東儒書院叢錄)》 경기도(京畿道) 지평(砥平)

雲鷄書院[癸巳建 肅宗甲午賜額 在龍門] 趙晟[號養心堂 義盈令 字伯陽 平壤人 退溪門人 官至宗廟令 儒林有集] 趙昱[明宗朝遺逸 字景陽 號龍門 平壤人 靜菴門人 拜主夫 筆法甚高] 申忬[字樂夫 號橘亭 中宗朝乙亥文科 己卯辭遞評事 棄官後連辛巳之獄 被罪 平山人采華之子] 趙亨生[號遞谷 昱孫 ○右二位 初并享 平壤人 肅宗甲午因傳教別立鄉賢祠]

2) 문집에 보이는 서원 관련 기록

조욱(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연보(年譜)

龍門先生年譜

(이상 생략) 三十六年丁巳[先生六十歲] 三月 豎判官公墓表石 先生 撰陰記并書 ○十二月十一日庚寅 先生考終于青 坡里第 三十七年戊午二月丙申 葬于砥平龍門山南支丑 坐未向之原 [卽先生舊居後寺谷]神宗皇帝萬曆六年[宣祖大王十一年] 戊寅 先生長子孔賓撰 壙記 十五年丁亥七月 埋誌石于墓 ○門人直長愼有撰 誌文 題誌石後面 毅宗皇帝崇禎九年[仁祖大王十四年] 丙子 命抄啓先賢 先生被選 [金相國埈與禮曹 弘文館 同議抄選] 甲午 [孝宗大王六年] 士林就先生舊居之傍 [卽白雲溪] 設俎豆之所 丁酉 [孝宗大王九年]浦渚趙文孝公翼 撰行狀 [按東儒師友錄 有陳 旭所撰行狀七條 而原本失傳] 癸巳 [肅宗大王三十九年]砥平儒生朴世龜等 以本院請額 事上疏 [製疏閔永孝 疏色閔 疏本見附錄]不許 疏入 上命該 曹稟處 禮判徐文裕回啓 以爲觀此砥平儒生朴 世龜等上疏 則砥平有故縣監趙昱書院 以其兄晟及故持平申抃竝享 號爲龍門書院者于今六十年 尙未以聞朝家 未蒙賜額之恩 請令有司趁卽 頒額 以光祀典云云 趙昱之學術行誼 實爲一時儒 賢之所深許 後世士林之所欽仰 誠宜崇獎 以資觀 感 而趙晟申抃兩人學問淺深 先輩之表章 旣無彰 明 後學未能詳知 有難輕議 竝享俎豆之列疏內辭 緣 置之何如 啓依允 ○四月 再疏[疏本見附錄] 蒙允 ○五月初五日 御容圖寫都監提調以下景賢 堂入侍時 提調閔鎮遠所啓 砥平儒生等 以故縣監趙昱及其兄趙晟 故持平申抃三臣祠宇請額事陳疏 蓋趙昱 卽先正臣趙光祖門人 而其一時儕 友先正臣李滉 成守琛 徐敬德等 無不推許 其兄晟 亦有先正臣李滉稱道文字 而申抃則名入於己卯 黨籍而已 平日言行事迹 不少槩見前日 本曹以此 持難而防啓矣 今又申請 當爲回啓 而聞先正 臣朴世采嘗以爲申抃 別立鄉賢祠爲可云 此論似好 而別立鄉賢祠 非該曹所可指揮 有難泛然回 啓 故敢此仰達矣 下詢于大臣何如 上曰 此亦何如 都提調李頤命曰 臣亦嘗往來砥平 頗聞居人之言矣 趙昱則不但學行可稱 朝家嘗選先賢錄 亦入其中 至於收錄其子孫 今不必更論 而趙晟亦 以遺逸被簡 先正臣李滉 稱其有才學 至於申抃

則以己卯土類 終至被禍 未知生時有何行迹 不少著見 但於野史 有歸田閑居之事 故相臣李端夏亦居 本縣 嘗以爲名行無著 不必立院云 今此該曹所以難處 有此陳稟矣 臣意則申朴 只合鄉賢祠 趙昱兄弟 許其院額 似宜矣 上曰 申朴既無行迹著稱 似難并享 宜許鄉賢祠 趙昱兄弟 書院賜額可也 甲午[肅宗大王四十年]九月 遣禮官[佐郎申兼濟] 致祭 [祭文見附錄] 賜 額龍門書院 [去年十月 定延額矣 適值大提學遞任 因以上侯未寧中止 至是舉行] 庚申 [英宗大王十六年] 命贈吏曹參議 五月十二日 藥房 入侍時 都提調金在魯所啓 故儒逸趙昱與其兄趙晟 皆先正臣趙光祖門人 而隱居求志 學行甚高 晟則才識又極淹博 名臣錄以爲人比之兩程矣 其家在砥平龍門山下 故昱則號以龍門 晟則號以養心堂 而俱登薦辟 昱則官止縣監 晟則官止於令 龍門山下 有竝享賜額之書院矣 在前朝家 於儒賢 多有身後褒贈之舉 徐敬德 曹植 成守琛三人 至贈議政 其餘表表名儒 亦參量贈職 而此兩人 無所陳達 嘗未表贈 臣於昨年 受由往砥平地 聞其地土論 殊以爲歉 且方有位版改造之事云 若因此會 蒙恩改題 則事甚便好 以堂上三品贈職何如 上曰 卿若不達 則予豈知之乎 卽是先正門人 而且有名臣錄所論云 依爲之可也 乙丑 [英宗大王二十一年] 十月 立碣石于墓左 ○[左議政趙翼撰 左議政李健命書 牧使李徵夏篆 大司憲金鎮商追記] 乙酉 [英宗大王四十一年] 諸子孫就先生舊基 重建洗心堂 [堂成後 又重築洗心池]

조육(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龍門書院講堂上樑文[李景奭]

高山仰止 共切景慕之誠 舊迹依然 宜修崇奉之禮 牲 奠可舉 燕賀方騰 惟我龍門趙先生 聰敏其資 孝友之性 夙探程子朱子之道 夢寐如或見之 早遊靜庵沖庵之門 淵源有自來矣 素患難而色不懼 經險難而操益堅 餘事文章 浮雲富貴 友一國之賢士 無非碩德真儒 發千古之微辭 有是中庸大易

克復則著絕句之言志 琢磨則從伯子之吹埴 何恤乎得失榮枯 所學者格致誠正 一鶚交薦 當際可而敢違 五馬暫行 便解歸而終老 疾書而夜起者數樂育而時習之多 眷茲龍門擅勝之區 曾是燕居修道之所 層巒疊嶂 據江漢之上游 一塢數椽 有柴荆之故址 拜謁峯下 尙留若堂之封 趨揖山前 幾興行路之歎 肆營妥靈之宇 繼開肄業之堂 非惟今日二三子之同心 抑亦昔時老大臣之遺意 尊賢之至 忘力綿而爭趨 用相于成 舉聲應而共濟 十室忠信 知美俗之足觀 百里謳謠 幸佳政之首被 蒼崖碧磴 覺溪山之增輝 絳帳緇帷 見衿佩之動色 幾年爲獸蹄 鳥迹之林藪 一朝化鳶飛魚躍之乾坤 某水某丘 想杖屨之行過 爰居爰處 悅警咳之親聞 茲丁令辰 敢申善頌 拋樑東漢水之東道亦東 心無可洗何須洗 堂絕纖埃月上東 拋樑西 山勢北來江山西 瑤琴鳴罷親黃卷 爲惜窓前白日西 拋樑南 當日高名斗以南 白雲不向青雲住 舒卷無心東復南 拋樑北 不用開襟煩向北 長從座上襲餘春 三伏猶嫌風自北 拋樑上 扶筇時上東 山上 眼底平看列岫低 春衣更拂清溪上 拋樑下 上達從來須自下 涵養宜從靜座中 工夫正在孤燈下 伏願上樑之後 粉袍攸集 青山不孤 慕義向風 快有同於覩鳳 升堂入室 喜自倍於登龍 見賢思齊 潛心對越 日勉焉而矻矻 夕惕若而乾乾 冬夏詩書 但見進也 春秋俎豆 勿替引之 能令赤縣之民 遷善於下 罔俾白鹿之洞 專美於前 斯乃積德之基 永爲作人之地

조육(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龍門書院春秋享祝文

學傳先正 道啓後人 宜享千秋 永奉明禋

조육(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請額疏[疏頭儒生 朴世龜]

國家自列聖以來 崇儒右文之化卓冠今古 而至于 我趙昱隱居之地 旁近章甫 就建講業之所 遂以昱之兄晟及昱 膺享其中 又以故持平臣申朴并享而私號 之曰龍門書院者 于今六十年 尚不以聞於朝家 此 則臣等庸懦無勇 遷就不決之罪也 嗚呼 昱等之道德 學業 爲一世之所尊仰久矣 雖以臣等之孤陋 亦嘗聞 其餘風 今請略舉其梗槩 以備聖明之裁察焉 昱幼 有異質 學語便解作文 十餘歲 已以孝友稱於鄉黨 十九 中生進兩試 遂大有名公車間 人皆謂一第不足得 而昱顧乃不欲以名利進 聞文正公趙光祖 故大司成金湜講古人義理之學 往從之 沈潛研究 至忘寢食 光 祖亟稱之曰 求道之勇 無如趙某 期待異於他弟子 己卯禍作 欲拜疏辨理 未及上而坐門生繫獄 以年少脫 禍 遂作詞以悼傷 自是無復當世之念 與兄晟 築室朔寧山中 兄弟自爲師友 朝夕切磋 有志之士聞風從之 一世重其名 至比於二程 視世之毀譽榮辱若浮雲然 惟以著書講學爲至樂 及黨禁稍解 華聞日彰 薦授齋 郎者三 而輒棄歸 晚卜居龍門山下 名其洞曰遜村 號 其堂曰洗心 所建書院卽此地也 故世稱龍門先生 而 學者日益進 晝則討論經旨 夜則獨坐沈思 其有自得 處 雖夜深 必呼門人子弟 抽出經傳以參驗之 明廟 下求賢之旨 朝廷以昱及成守琛 曹植 成悌元應命 於是特陞六品階 授內贍寺主簿 昱感不世之遇 乃黽勉 就職 出爲長水縣監 其治以新民教士爲務 邑俗爲之 丕變 無何 自免歸舊隱 與先正臣李滉 成守琛諸賢 竿 尺往來 講論不輟 諸賢之推許甚盛 或曰 篤志道學 期 造聖域 或曰 得路着工 進進不已 至其後賢之所稱道 則有曰 所學之正 用工之篤 所得之深 所守之正 爲世 所至鮮 而人不可及 觀於此 亦可以知昱之本末矣 晟 則早歲志學 與昱齊名 最善於覃精深究 一時士友皆 退遜 自以爲不及 而儒術之餘 旁及於天文 地理 醫藥 律呂 筮數 無不精通 輒辭除命 一以育才爲任 戶屨常滿 門徒之

至於達官者甚多 朝廷釐正音樂 晟承 命監較 咸得其正 及欽敬閣災 命晟新之 一如舊制 簡儀臺亦監修正 使觀天察候之道不失其妙 而李滉 嘗序其遺稿曰 當時所取而試用者 特其塵垢糠粃而 非其至也 余所叩而願學者 亦其一班緒餘而非其全 也 滉之言乃如此 則其未得而試者 可知矣 至於朴則亦以己卯士類 棄官經歸 終罹餘禍 嶮然不滓 恬靜之操 卓絕之識 自有難掩者 流風所及 尚能廉頑而立懦 則竝享於一堂 實出於共公之論 夫以三賢臣之盛德 懿行高風峻節 宜有聖世之表章 而顧茲脞享之祠 儀度草創 香火斷續 尚未蒙賜額之恩 此豈徒士林 之深恨 抑亦爲朝家之闕典 茲敢不避猥越 相率仰 籲宸嚴之下 伏乞聖明 特命攸司 考例舉行 趁卽 頒額 以重斯文 以光祀典 千萬幸甚

조옥(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請額疏(再疏)

伏以臣等爲先正故縣監臣趙昱及其兄晟 故持平申 朴三賢臣書院請額事 相率抗章 而事下該曹 未免寢 格 臣等竊不勝違悶抑塞 繼之以駭惑焉 夫以三賢臣 之盛德懿行高風卓節 宜有聖世之表章 而顧此脞 享之祠 未蒙賜額之恩 則此豈但士林之深恨 抑亦爲朝家之闕典 若以該曹之寢格 泯默自沮 不爲申 籲於黈纆之下 則臣等庸懦無勇慕賢不誠之罪 至 此益無所逃矣 又安得徒畏僭越之誅 不一言以明之 哉 嗚呼 趙昱之師友淵源 學問操履 前疏已略舉 而該 曹之啓有曰 學術行誼 實爲一時儒賢之所深許 後 世士林之所欽仰 誠宜崇獎 以資觀感云爾 則至於昱 該曹亦不敢容議 而其所持難者 惟在於趙晟 申朴兩 人 至以學問之淺深 先輩既無表章 後學不能詳知 有 難輕議於竝享爲言 臣等請以兩臣學問之純深 先輩 之所已表章 後學之所可詳知者 條列而畢辭焉 晟早歲志學 與昱齊名 造詣超邁 見識通明 最

善於覃精深 究 當時士友皆退遜 自以爲不及 每有除命 輒辭不就 一以育才爲己任 其所誘掖成就 爲一世之鴻儒 臣者磊落可數 講理之餘 旁及天文地理 律呂 筮數之書 靡不精通而妙解 朝家釐正音樂 晟承命監校 咸得其正 及欽敬閣災 命晟新之 一如舊制 簡儀臺 亦晟之所修正 使觀天察候之道不失其妙 而先正臣李滉序其遺稿曰 當時所取而試者 特其塵垢糠粃 而非其全也 滉之言如此 則其學問之純深 於此可見 果可謂先輩無所表章者乎 若朴則以己卯士類 從遊於先正臣趙光祖 金淨諸賢間 講究義理之學 先事之明 炳幾燭微 罷官歸田 嶠然不滓 而平生直道 爲奸黨所仇嫉 終罹慘禍 苟非學問之純深 其恬靜之操 卓絕之識 何能若是乎 彌久彌彰 而始終事蹟 具載於己卯錄 則後學之所宜考信而詳知者 顧不在此乎 臣等之所居砥平縣 卽三賢棲隱之地 講磨之所 則竝設畏壘之祝 以寓尊仰之誠者 實出共公之論 而方今聖上臨御 治教休明 崇儒右文之化 卓冠古今 雖有一言一行 之可以稱著者 亦莫不闡發褒揚 以爲勵世磨俗之資 則況此三臣之名賢宿德 大有功於斯道 而獨未得顯祀之典者 豈非可惜之甚乎 若以晟 朴兩臣 爲不可輕議於竝享 則顧今諸處祠院合享諸賢 名實德業 豈無差等之可言 而猶不廢竝享之議 何獨於此兩賢而疑之哉 兩賢臣純行卓操 表表可徵 流風所及 尚能立懦 廉頑 而今乃持難於兩臣之同享 竝與昱祠而尙靳旌額之恩 此臣等所以不能無惑 必欲申請而不知止也 伏願聖明 竝加鑑裁 亟命攸司 考例舉行 趁卽頒額 以重斯文 以光祀典 千萬幸甚

조육(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賜額時筵說

癸巳五月初五日 御容圖寫都監提調以下景賢堂入侍時 提調閔鎮遠所啓
砥平儒生等 以故縣監趙昱及其兄趙晟 故持平申抃三臣祠宇請額事陳疏
蓋趙昱 卽先正臣趙光祖門人 而其一時儕友先正臣李滉 成守琛 徐敬德等
無不推許 其兄晟 亦有先正臣李滉稱道文字 而申抃則名入於己卯黨籍而已
平日 言行事迹 不少槩見 前日 本曹以此持難而防啓矣 今又申請 當爲回
啓 而聞先正臣朴世采嘗以爲申抃 別立鄉賢祠爲可云 此論似好 而別立鄉
賢祠 非該 曹所可指揮 有難泛然回啓 故敢此仰達矣 下詢 于大臣何如 上
曰 此亦何如 都提調李頤命曰 臣亦嘗往來砥平 頗聞居人之言矣 趙昱則不
但學行可稱 朝家嘗選先賢錄 亦入其中 至於收錄其子孫 今不必 更論 而
趙晟亦以遺逸被簡 先正臣李滉稱其有才學 至於申抃 則以己卯士類 終至
被禍 未知生時有何 行迹 不少著見 但於野史 有歸田閑居之事 故相臣李
端夏亦居本縣 嘗以爲名行無著 不必立院云 今此該 曹所以難處 有此陳稟
矣 臣意則申抃 只合鄉賢祠 趙昱兄弟 許其院額 似宜矣 上曰 申抃旣無行
迹著 稱 似難并享 宜許鄉賢祠 趙昱兄弟 書院賜額可也

조육(趙昱), 《용문선생집(龍門先生集)》 권6 부록

龍門書院賜額致祭文

中廟在宥 眞儒輩出 大禍中構 棟樑摧折 紛紜狼狽 背 師諱學 蘭芷亦化
涇渭一濁 疇能確然 惟乃弟兄 抱經 空谷 身困道亨 心存括囊 誠切築場
默護士氣 潛扶國 脈 尙功誦義 砥柱松柏 自悼之詞 聞者興悲 含光蘊寶
百世俟之 鶴聞九臯 旌招屢聘 銅儀復修 雅樂待正 間 出糠粃 世或驚倒
倘究其用 曷量其造 丘園歲暮 師友 周旋 講磨精微 苑有緒言 龍門一曲

山高水長 生焉考槃 沒而祭饗 多士來籲 表章敢緩 錫名竝祀 眷爾興歎

3) 조선왕조실록의 서원 관련 기록

없음